

# 도, 창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들어

### 진흥 정무부지사, 청년창업가 10명과 간담회... 성공사례 공유·애로사항 청취·지원책 등 논의

전북도 진흥 정무부지사는 설 명절이 끝난 연초부터 창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현장행보를 멈추지 않고 이어갔다.

진흥 부지사는 전주 시내 한 음식점에서 전북지역 청년창업가 10명을 만나, 초기 사업과 과정에서 겪게 되는 애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날 참석한 10명의 청년창업가는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업터, 콘텐츠코리아랩, CNIP, 호성창업보육센터, 소상공인희망센터 등에 입주한 창업 초기기업가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청년창업지원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청년창업자의 현장경과 애로사항을 청취해 이들의 건의사항을 포함한 지원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는 창업 붐 조성을 위해 지원기관이나 도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기탄없이 말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본격적인 간담회에서는 어느 기업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이전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하기도 하고, 스타트업 청년들 간의 네트워크 지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은퇴자와 젊은 창업팀과의 연계, 지역의 창업지원 시설과 정보들을 청년 창업가에게 적극 공개하는 등 현장에서 느꼈던 애로와 건의사항이 이어졌다.

그동안 지역 내 청년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주력해 온 진흥 정무부지사는



전주 시내 한 카페에서 진흥 정무부지사는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업터, 콘텐츠코리아랩, CNIP, 호성창업보육센터, 소상공인희망센터 등에 입주한 창업초기기업가 10명을 만나, 초기 사업과 과정에서 겪게 되는 애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전북지역의 경기 회복을 위해 청년 창업, 취업 지원 등을 통한 청년 지원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 한해를 '작은 창업가, 청년창업가 약진의 해'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진흥 정무부지사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올 상반기 중 청년 창업가를 만나는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며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청년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전북도는 이번 간담회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창업 관련 현장 의견을 지

속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수요를 발굴해 작은 창업자의 붐 조성하고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지원한다.

특히, 최근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나, 최고 고부가가치 창출 영역인 '기술창업'은 여전히 도전하기 어려운 분야로 인식되고 있어, 전북도는 기능과 창업이 함께하는 조금은 경미한 작은 창업에 청년들이 도전하고 성공하는 창업 모델을 발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가 지속 가능한 성공창업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창업의 허브기관으로 변화를 구

상하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지원 기관의 연합체를 구성 아이템의 완성성장을 돕는 연계지원 모델링 개발에 온 힘을 쏟기로 했다.

진흥 정무부지사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을 수립·개선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를 도정 활동에 적극 반영해 전북지역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년창업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토양에서 자란 모종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청년들이 창업하기에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쓸 것"이라 말했다. /인재용 기자

## 희망·내일 키움통장 신규 대상자 모집

희망 I · 내일 10일까지... 희망 II 17일까지

전북도는 저소득층의 자선형성을 위한 자립지원 사업으로 희망 키움통장 I, II와 내일키움통장 1차 신규 대상자를 오늘부터 모집한다.

자선형성사업은 저소득층이 일하며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희망키움통장 I 160명, 희망키움통장 II 1,228명, 내일키움통장 214명을 신규 모집할 계획이다.

희망키움통장 I과 내일키움통장은 10일까지 1차 모집을 실시하며 희망키움통장 I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내일키움통장은 지역 자활센터에, 희망키움통장 II는 17일까지 1차 모집을 실시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지원금 사용용도 유효 기준을 완화하고, 사용용도 또한 결혼자금까지 확대한다. /인재용 기자

## 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선정

'VR 문화재 이력관리·관광자원 공동 활용 플랫폼 개발'로

전북도는 지난 1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실시한 '2017년도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사업은 신기술 기반의 공공서비스 발굴을 통해 신기술의 수요 창출 및 활용을 촉진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지식자원의 디지털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VR 기반 문화재 이력관리 및 관광자원 공동 활용 플랫폼 개발이란 명칭으로 공모에 참가했으며, 이번 선정으로 국비 6억원을 확보했다. /인재용 기자

도는 이번 선정된 사업의 일환으로 먼저 지금까지 축적되어온 자료와 정보 DB로 자료화하고, 이것을 다시 문화재 지정, 유지, 보수, 예산투입 현황 등 정보의 등록과 관리가 가능한 문화유산 이력관리 시스템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일반인의 문화유산 검색과 관광객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공간정보 기술을 사용해 문화유산 안내 기능 및 관광객의 일정 설계가 가능한 '전라북도 문화유산 관광 가이드 서비스 시스템'으로 개발해 공개할 방침이다. /인재용 기자

## 순창군, 힐링투어로 500만 관광객 유치 시동

순창군이 올해 전북방문의해를 맞아 지역 힐링자원을 본격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순창힐링투어 마케팅에 나서 관광객 500만명 유치에 청신호를 쏘아올렸다.

군은 강천산, 섬진강을 중심으로 순창만의 독특한 힐링투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했다.

한해 120만명이 넘게 찾는 강천산은 완복 5km 정도의 완만한 맨발 산책로와 삼림욕 데크가 잘 갖춰져 가족들이 찾는 대표적 힐링명소다. 올해는 관광전용 도로를 완성하고 온천수를 이용한 수(水)체험센터와 동굴형체험관 조성에 들어가 힐링관광 자원이 대폭 강화된다.

섬진강에는 용굴산치유의 숲에 올해 향토식물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자생식물원이 완공돼 대표적 산림치유 관광지로 변모한다.

이외에도 올해 순창군에는 만성질

환 치유에 효과가 있는 작물들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의농업체험관, 건강이 좋은 디저트와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식문화 실습관, 치유농장체험, 승마장 등 다양한 힐링자원이 본격 운영에 들어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순창힐링투어 마케팅에도 본격 나선다. 코레일 마케팅관계자, 여행사 임원, 블로거 기자 등을 대상으로 연 15회 팸투어를 진행하고 코레일 업무협약 단체에는 버스비 등을 지원한다. 코레일 각 지역본부 및 코레일 역사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투어패스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 창출에 나선다. 투어패스 카드 소지자 무료이용 관광지들 강천산에서 건강장수체험관, 천재의공간 영화산책으로 확대하고 할인혜택을 주는 식당과 모텔, 특산물 판매처를 50여개소로 확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도내 축산부산물 가공품 홍콩 수출

전북도는 지난 1월 19일 전북산 한우고기 홍콩 수출 재계에 이어 오는 7일 전북산 한우와 돼지의 부산물로 만든 축산물가공품을 잇달아 수출한다.

수출업체는 김제시 월촌농공단지 입주에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주)육감으로 올해 총 수출액 미화 20만불을 계획하고 있으며, 최초로 축산부산물 가공품을 시범 수출한다.

이번에 시범 수출되는 품목은 한우, 돼지 양념 곱창류 2종, 머릿고기 1종, 곱창류 5종, 육수 2종 등 총 10종 700kg으로 홍콩 한식당의 신메뉴 런칭과 소매점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축산부산물 가공품은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으며, 수출 확대가 이뤄진다면 부산물 수급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 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 공고

초·중·대 700명 선발... 영어권 초등생 TOSEL로 선발·도내 주소지 대학생에 기회

전북도와 전북인재육성재단은 3일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 공고를 했다.

올해 해외연수 사업은 초등학생(5~6학년)과 중학생, 대학생을 선발 대상으로 총 700명(초등학생 335명, 중학생 335명, 대학생 3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초·중학생은 6주 동안 영어권과 중국어권으로 연수가 가능하며, 영어권은 60%, 중국어권은 80%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은 개인별 연수프로그램에 의해 25주~48주까지 영어권, 중국어권, 일본어권, 기타 언어권으로 연수가 가능하다.

올해 해외연수의 가장 큰 변화는 연수생 선발방식 변경이다. 영어권 초등학생 연수생 선발은 EBS와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영어능력 공인인증시험인 TOSEL로 대체하기로 했다.

영어권으로 연수를 신청하는 초등학생은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 2015년 1월 이후의 토셀 성적표를 제출해야 하며, 토셀 성적표가 없을 경우 반드시 3월 25일 또는 4월 29일에 실시하는 토셀 특별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반면 중국어 연수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 면접 시험(어학)에 응시하면 된다.

해외연수 신청하는 중학생 신입생은

학력진단평가 평균성적으로, 2~3학년은 직전학년 성적으로 선발한다.

대학생은 주민등록이 도내에 등록된 도의 대학생에게도 연수기회를 준다. 올해부터는 도내 주소지를 둔 도내, 외 대학생에게도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연수비용을 어학뿐만 아니라 예, 체능, 가능분야로 확대 추진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연수기회를 확대한다.

올해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예산의 20%를 배정하며 다문화가정 자녀를 14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이 연수 갈 경우 최대 2,4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정읍시 공고 제2017-94호

### 정읍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지정계획(변경)(안) 열람공고

정읍시 고시 제2013-87(2013.11.29.)호로 지정된 정읍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지정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명 칭: 정읍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지정계획(변경)(안)
  - 위 치: 정읍시 소성면 신전리 23번지 일원
  - 면 적: 232,000㎡
  - 사업시행자: 정읍시
2. 주민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2017년 01월 24일 ~ 2017년 02월 13일
  - 공람장소: 정읍시청 첨단과학산업과, 소성면사무소
  - 내 용: 배수시설 추가 변경
3. 기타사항
  - 이해관계인의 개별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의견 제출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열람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첨단과학산업과(☎ 063-539-5672), 소성면사무소(☎ 063-539-72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 19. 정 읍 시 장

한전 중부권 공고 제2016-2호

### 분묘개장 공고 (제2차)

산업자원부 고시 제2015-253호(2015.12.10.)로 시행하는 154kV 신남원-남원 송전선로 건설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소재하는 아래 분묘에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아래의 신고처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의 절차에 의해 임의 개장(이장)할 수 있음을 공고합니다.

1.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분묘소재	지번	지목	가수	비고
남원시 이백면 양거리	산71-1	임야	1기	154kV 신남원-남원 송전선로 건설사업 열람번호 3호
남원시 식정동	산55	임야	1기	154kV 신남원-남원 송전선로 건설사업 열람번호 15호
남원시 고죽동	산90	임야	1기	154kV 신남원-남원 송전선로 건설사업 열람번호 22호
남원시 고죽동	산94	임야	2기	154kV 신남원-남원 송전선로 건설사업 열람번호 23호

2.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관계인)가 신고 후 합의이장(이장비 지급)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자(공고자)가 임의개장 후 납골당 안치
3. 무연분묘개장 후 안치장소: 전라북도 남원시 승화당
4. 개장시유: 154kV 신남원-남원 송전선로 건설사업
5. 공고기간: 2016년 12월 26일 ~ 2017년 03월 26일(3개월간)
6. 신고 및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전북건설지사 토건부 ☎(063) 240-5888
  - 남원시청 여성가족과 ☎(063) 620-6192
7. 신고서류: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사실확인서, 기타 증명서류 등
8. 기 타: 상기 공고기간 내 연고자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자가 임의개장 하겠으며,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2월 6일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처 전북건설지사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